이 묵시문학운동은 민중들의 아우성이자, 운동이었다.

아무래도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즉 예수시대의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성서 속의 민중운동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일단, 예수 전 시대로 더듬어 올라가자. 물론 예수에 대해 살필 때도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민중과 더불어 이해해야 한다.

2. 민중운동의 태

예수운동과 직접 관계되는 시기는 마카베오독립전쟁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간다. 헬라계 시리아 세력이 팔레스틴을 점령하였다(A.D. 198년). 한편 성서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은 찬란한 영광 혹은 창기, 바람난 처녀로 비교되는데, 항상 외적의 점령이 있을 때마다 외세와 융합하여 최소한의 실권을 취하고서 모든 것을 외세에 넘기는 부패의 상징이었다. 이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뜻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둘 떠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서북쪽 모데인(Modein)이라는 곳에 시리아 관원이 와서 안티오쿠스의 제사를 강요하자, 이 지역의 노사제 마카베오—그도 예루살렘을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이를 거부하였지만 관원은 다른 이로 하여금 행사를 진행시켰다. 이에 마카베오가 분노하여 제사를 집행한 그 유다인과 시리아 관원을 죽여버리고 일어나서 “조상의 전통인 하느님을 경외하는 열의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소리치고 아들 5명과 함께 입산하였다(마카상 2, 15~30). 이에 많은 민중들이 따라서 입산하였다. 그리고 마카베오의 아들 유다는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고 마침내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다. 그는 곧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8일간의 제사를 드린다. B.C. 597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때 ‘하시딴’이라는 신앙의 동지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들이 마카베오와 함께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철저한 경건생활자로서 싸우다가도 안식일에는 무기를 놓고 그냥 적의 칼에 죽어갈 정도였다(약 천 명이 죽음). 이 하시딴의 신앙을 보고 바리사이파와 에세네파는 부활신앙으로 이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루살렘 탈환 이후 하시딴의 운동은 약화되나 마카베오는 하스몬 왕조를 세워 계속하여 판도를 넓혀갔는데, 이 왕조에서 헤로데왕이 나오게 된다. 권력을 잡은 하스몬왕조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반대파의 세력이 또다시 형성되니, 그것이 바리사이파와 에세네파이다. 에세네파는 탈예루살렘파로서 “물러나서 때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고, 바리사이파는 “헛된 생각이나 고고한 생각을 버리고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리사이파는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등 만만찮은 개혁세력으로 등장하지만 하스몬왕가가 이에 반발, 바리사이파는 박해를 받게 된다. 이들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평신도운동을 주창하며 율법공부에 충실하고, 선택의식이 철저하여 ‘구별된 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바리사이파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여 살로메시 대에는 하스몬왕조와 타협하여 여권(輿圈)으로 진입하게 된다. 한편 바리사이파는 여권 안에 자리잡으면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정신무장을 위해 율법을 생활화하고 율법해석에 주력하여 이를 생활규범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제사계급에 한정되었고, 모든 국민에게는 정결법을 강요하면서 민중에게서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

게 된다.

에세네파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최초의 공산주의체제로 인정하는 그룹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와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고, 오히려 호의적이었다. 이들은 탈예루살렘하여 생활공동체를 조직하였는데 생활은 엄격하여 부부분리, 노동, 성서연구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러운 손으로부터 탈환해서 정화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은둔자처럼 살다가 젤롯당이 중심이 된 반로마전쟁에 모두 참가하여 몰살당하고 만다.

세례자 요한파는 에세네파의 일파이거나 그 후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수는 세례자 요한파를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교운동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이들은 예수에게로 흡수된다. 이들은 종말사관(終末史觀)을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 그러니 범국민적으로 의인, 죄인, 라삐, 제사계급 할 것 없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대교의 토라와 성전 종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젤롯당은 탈예루살렘뿐 아니라 반예루살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전술한 나머지 세 파는 예루살렘을 늘 안중에 두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젤롯당 당시 민중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젤롯당은 일종의 게릴라부대로서 대로마전쟁을 위해서 폭력과 무력의 사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갈릴래아를 거점으로 하여 침략세력과의 타협의 기수인 예루살렘을 숙청하고 공격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았다. A.D. 6년에 로마제국의 호구조사에 반기를 들고 갈릴래아에서 봉기하였으며, A.D. 70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치열한 전투 후 패배하였고, A.D.

135년 바르 코흐바(Bar Kochba)의 지휘하에 일단의 부대가 로마군대와 전투를 벌여 전원이 전사함으로써 막을 내린 지사적 운동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유다전쟁의 결과 유다교에서는 다른 그룹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결국 로마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바리사이파만 남게 되었다. 바리사이파는 반로마운동을 하지 않고 종교운동만 하겠다는 타협을 하고 얄니아(Jamnia)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성서를 완성했으며, 생활규범(탈무드 등)을 문서화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바리사이파는 끝내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3. 민중운동의 태동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운동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운동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의 “세례자 요한이 잡힐 후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가셔서”와 15절의 “때가 찼고…… 회개하라”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14절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14절에 의해 15절이 의미있게 된다. 즉 세례자 요한이 잡힐 때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했다.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로데왕은 죽을 때 자신의 영토를 갈릴래아, 유다, 요르단의 3개의 분봉령으로 나눴는데, 갈릴래아의 분봉왕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안티파스는 소요와 민중봉기가 무서워 세례자 요한을 체포, 제거해버렸다.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는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이다. 한편 세례자 요한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참가했던 예수가 이제는 자신의 활동시기임을 알고 세례자 요한을 체포한 안티파스가 있는